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 (초점)-바이든, 취임 첫해 연준 개편 압력 직면할 듯
 - ◇ (초점)-농협 CD 86 일물 0.75% 거래가 던진 CD 고시 딜레마
 - ◇ (초점)-달러/원의 이유 있는 하락, '빅 피겨' 눈앞..당국 생각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 보건 당국과 군 요원들이 밍크를 살처분하고 있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밍크 농장에서 변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로이터)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13일 종가 기준)

| 원화 % | 최종 | 주간(%) | YTD(%) | 2019(%) | 달러 대비 % | 최종 | 주간(%) | YTD(%) | 2019(%) |
|---------|----------|--------|---------|----------|------------|-----------|--------|----------|----------|
| 달러 대비 | 1,115.6 | 0.4% | 3.7% | -3.5% | 유로 | 1.1832 | -0.3% | 5.5% | -2.3% |
| 100엔 대비 | 1,058.4 | 2.5% | 0.4% | -4.4% | 엔 | 104.62 | -1.2% | 3.8% | 0.9% |
| 유로 대비 | 1,310.5 | 1.6% | -1.3% | -1.3% | 위안 | 6.6115 | 0.0% | 5.3% | -1.3% |
| 위안 대비 | 167.59 | 1.2% | -1.1% | -2.4% | 해외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9(%) |
| 한국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9(%) | 다우존스 | 29,479.81 | 4.1% | 3.3% | 22.3% |
| 코스피 | 2,493.87 | 3.2% | 13.5% | 7.7% | 나스닥 | 11,829.29 | -0.6% | 31.8% | 35.2% |
| 코스닥 | 839.14 | 0.3% | 25.3% | -0.9% | S&P500 | 3,585.15 | 2.2% | 11.0% | 28.9% |
| 국내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9(bp) | MSCI APxJP | 612.92 | 1.1% | 10.9% | 15.8% |
| 국고채 3Y | 0.965% | 2.2bp | -39.5bp | -45.7bp | 미국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9(bp) |
| 국고채 5Y | 1.298% | 4.4bp | -18.2bp | -40.4bp | 미국채 2Y | 0.181% | 2.6bp | -138.0bp | -93.7bp |
| 국고채10Y | 1.627% | 6.8bp | -5.6bp | -26.5bp | 미국채 10Y | 0.898% | 7.8bp | -101.2bp | -78.1bp |
| 국제상품가격 | 최종 | 주간(%) | YTD(%) | 2019(%) | CDS프리미엄 | 최종(bp) | 주간(bp) | YTD(bp) | 2019(bp) |
| 유가(WTI) | 40.13 | 8.1% | -34.3% | 34.5% | 한국 5Y | 21.3bp | -1.5bp | 0.3bp | -17.0bp |
| 금(현물) | 1,888.04 | -3.3% | 24.5% | 18.3% | 일본 5Y | 15.1bp | -1.6bp | -2.7bp | -4.0bp |
| TR상품지수 | 2,670.63 | 1.3% | 7.4% | 4.8% | 중국 5Y | 30.6bp | -1.5bp | -0.1bp | -35.8bp |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1 월 16 일(월)>

- 금융위,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10:00)

<17 일(화)>

- 기재부,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15:00)
- 통계청, 2019년 주택소유통계(12:00)

<18 일(수)>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한은,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19 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8:00), 1차관 브리핑(10:30)
- 한은,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 일(금)>

- 한은, 10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1 월 16 일(월)>

- 일본, 3분기 GDP (08:50)
- 중국, 10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10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산업이익·소매판매 (11:00)
- 일본, 9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11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2:30)

<17 일(화)>

- 미국, 10월 수입·수출 물가·소매판매 (22:30)
- 미국, 10월 산업생산 (23:15)
- 미국, 9월 기업·소매재고 (자정)
- 미국,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18 일(수)>

- 미국, 뉴욕 연방은행 3분기 가계 부채·신용 보고서 발간 (01:00)
- 일본, 10월 수출·수입·무역수지 (08:50)
- 호주 RBA 11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9: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0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2:30)

<19 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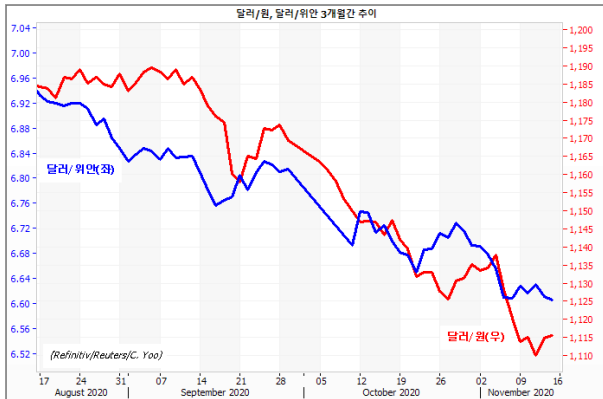
- 유로존, 9월 경상수지 (18:0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기업지수 (22:30)
- 미국, 10월 기존주택판매 (자정)

<20 일(금)>

- 미국, 11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01:00)
- 일본, 10월 CPI (08:30)
- 중국, 대출우대금리 (10: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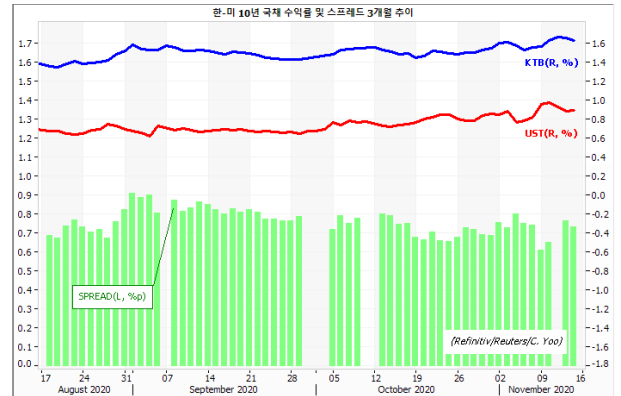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 19 확산, 최근 환율 하락세 등에 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빅 피겨'를 향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098-1120 원이다.
-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원화는 오히려 더욱 강세압력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 국내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도 다시 200 명 대로 늘었지만 다른 국가 상황에 비하면 방역 관리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는 듯하다.
- 최근 7 영업일 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유가 증권시장에서 약 4.3 조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관련 달러 매물이 원화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
- 지난 주말 역외에서 달러/원은 1110 원을 하향 이탈해 '빅 피겨'인 1100 원에 한 발 더 다가섰다.
-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로의 외인 순매수세가 지속된다면 달러/원은 빅 피겨를 앞둔 부담에도 하방 압력을 키울 여지가 크다.
- 다만, 1100 원을 가시권에 둔 상황에서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시장 내 긴장감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틈틈이 환율이 거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 한편, 19 일에는 삼성전자 분기 배당 지급일로 최대 13 억달러가량의 수급 변수가 발생할 예정이다.
- 이번 주 환율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양방향 외인 주식 관련 수급과 외환 당국 변수를 저울질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큰 산을 넘자 코로나 19 백신 개발 성공과 겨울철 대유행 징후라는 큰 갈림길 앞에 섰다.
- 백신 낙관론은 막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이미 역사 속의 사건이 된 듯한 태도로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고 있다.
- 한편, 미국과 유럽 등 겨울철로 접어드는 북반구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19 재유행은 백신 소식과 경쟁이라도 하듯 확진자가 연일 큰 폭으로 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돌아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외환, 채권 시장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력이 대단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지난 몇 달간 주식 시장을 떠받쳤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전에 보기 어려운 기세로 쌀이고 있다.
-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 하루 하루 판이 결정되는 듯한 모양새다. 코로나 19 백신 기대감과 미국 부양책 관련 공급 전망에 미국 채권 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내 채권 시장 분위기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이번 주에도 백신 상용화라는 미래 이벤트와 코로나 19 재유행 가속화라는 현실 사이에서 채권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서 맴도는 위험자산 가격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도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이 눈여겨볼 주요 지표로는 중국과 미국의 산업활동 및 소매판매 지표와 중국의 투자 지표가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주 초 정상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점)-바이든, 취임 첫해 연준 개편 압력 직면할 듯

워싱턴 (로이터) -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국의 통화정책은 최우선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도구들은 이미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차기 행정부에 대한 연방 지출 결정에 대비하여 준비돼 있다.

하지만 취임 후 1년 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연준에 얼마나 큰 각인을 심어줄 것이고,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일자리 증대에 다시 초점을 맞춰 밀어붙이면서 민주당 내에서 재신임을 받을 만큼 신뢰를 얻었는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공약에 연준이 인종간 부의 불평등과 같은 사안을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개혁이 포함되고, 파월 의장이 이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고려할 때, 바이든 당선인은 연준의 더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강한 금융 규제를 원하는 이들은 파월 의장의 재지명에 반대할 수도 있다.

전 연준 관리였던 빈센트 라인하트는 바이든이 자신을 취임시킨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2년 2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연준에 자신만의 인물을 올려놓길 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레이얼 브레이너드 현 연준 이사가 파월을 대체하거나 차기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언급됐다.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주택도시개발부 차관보를 지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저항이 크지 않은 후보

파월 의장의 강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연준의 강력한 대응을 관리했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얻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동적인 관계에서 살아남았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바이든의 지명을 승인할 때 이러한 동맹은 파월 의장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

로베르토 페를리 코너스톤 매크로 애널리스트는 최근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파월은 "가장 저항을 덜 받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파월은 미국의 중대한 통화 정책 개혁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연준의 우선순위를 고용 촉진으로, 다음을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재구성한 것도 포함된다.

연준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지난 여름 동안 진보주의적 이코노미스트들, 조합 관계자들 등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 중 바이든의 수석 경제 고문인 재러드 번스타인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다.

◆ 부의장 임명

연준의 부의장인 리처드 클라리다와 랜달 퀘일의 임기 역시 바이든 취임 첫해에 끝난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근 2년간의 리뷰에서 연준 정책 변화를 관리한 존경받는 이코노미스트다. 퀘스 부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더 강력한 감독을 추구할 경우 잔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인물로 평가된다.

연준 위원 7명 중 2명에 대한 트럼프의 지명이 하원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새 의회가 소집되는 1월 초에 종료되는 레임덕 기간 동안 이들의 지명이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만약 확정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은 인사 외에도 연준이 인종간 경제 격차 및 고용 결과 등에 대한 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선택해야 할 것이다. 파월 의장과 보스틱 총재 등의 정책입안자들은 자체적으로 이를 추구해 왔다.

번스타인 경제 고문은 연준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는 이메일에서 "파월의 감수성을 가진 누군가가 이 쇼를 이끌지 못한다면"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개정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방준비법 개정은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 긴급 프로그램

그리고 연준과 바이든이 다뤄야 할 단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실시한 긴급 대출프로그램 상당수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프로그램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퇴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바이든의 대선 승리가 분명해지기 전인 지난주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은 "이제 이 문제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점)-농협 CD 86 일물 0.75% 거래가 던진 CD 고시 딜레마..RFR 전환 공감대 키울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일부 양도성예금증서 (CD)가 고시금리와 크게 괴리된 수준에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며 이자율스왑(IRS) 시장에 연일 파열음을 울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CD 고시금리의 산출 방식을 실거래 기반으로 합리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종가관리성 매매를 고시증권사들이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CD 고시제도의 변화가 시장 전반에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이하 RFR)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협 CD 86 일물 0.75% 거래에 CD 고시 딜레마 드러나

지난 9일 금융투자협회의 최종호가수익률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스왑딜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했다.

이날 장중에 만기가 86일 남은 농협 CD가 고시금리보다 9bp 높은 0.75%에 100억 원 거래됐기 때문이다.

금투협이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CD 고시 방식에 따르면 만기가 86일 남은 CD는 91일물 거래로 인정된다. 만기 80~100일 이상인 CD 거래가 없는 경우 인접 만기(2개월 또는 4개월)의 유통, 발행물까지 CD 고시 금리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인접 발행·유통수익률마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한다. 이날 거래는 시중은행 CD 거래가 아니었고 거래량도 100억 원에 불과했지만 달라질 CD 고시 방식을 감안할 때 완전히 무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지난 3일 만기가 92일 남은 SC 제일은행 발행 CD가 0.68~0.69%에 400억 원 거래된 후 고시금리가 4bp나 상향 조정됐던 것을 딜러들이 기억하고 있어 불안감은 더 컸다.

결과적으로 CD 고시금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은 앞으로 달라지는 CD 고시금리 산정시스템하에서 나타날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 에피소드라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A 시중은행 이자율딜러는 "CD 금리 변동에 따른 시장의 포지션 영향이 워낙 크다"라며 "유통물 거래를 반영하려 할 때마다 조작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픽싱으로 의도치 않게 벌거나 깨지는 게 너무 커지니까 다들 짧은 테너로 규모가 큰 거래를 돌려야 할 것"이라며 "옵션 트레이딩처럼 헤지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협 "일관성 중요"..시장 일부 "RFR 전환 공감대 키울 것"

시장에선 이번 농협 CD 거래처럼 유통금리가 고시금리와 터무니없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시증권사들이 반영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D 시장의 유동성이 적은 만큼 향후 새로운 고시제도가 정착되면서 미세한 종가 관리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투협은 CD 금리가 일관성있게 고시된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지표금리 산출규정이 생기고 얼마나 일관성 있게 CD 금리가 고시되느냐가 핵

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CD 거래가 부족하다 보니 발행, 유통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출하는 빈도가 많지 않고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심거래에 대해선 고시증권사들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CD 고시제도 변화가 오히려 RFR로의 전환 공감대를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한국은행은 콜금리와 RP 금리 중 최종후보금리를 하나씩 선정한 후 공개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RFR을 정할 계획인데 향후 시장 정착이 과제다.

그동안 시장엔 기존 스왑거래의 안정성을 근거로 RFR로의 전환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RFR 도입의 장점이 부각될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계은행 트레이딩헤드는 "어제 거래에 대해 주변에선 조작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앞으로가 걱정인데 이런 거래를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고 반영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대표성이 있는 RFR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키우는 사례"라며 "조작에 대한 우려로 리보금리가 RFR로 전환되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초점)-달러/원의 이유 있는 하락, '빅 피겨' 눈앞..당국 생각은?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거의 2년 만의 최저치로 밀려 1000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면서 외환시장 내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연간 달러/원 환율은 4% 가까이 하락해 5%가량 하락한 달러/위안(CNH)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달러 지수 하락률과는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달러/원은 지난달에만 약 3% 하락해 작년 6월 이후 최대 월간 하락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벌써 2% 급락해 거침없는 하락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환율은 201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아 1000 원대 진입 가능성도 커졌다.

▲ 이유 있는 원화 강세

노무라는 10일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관리, 건전한 국제수지와 낮은 공공 부채 비율, 저유가와 견조한 IT 수요 및 중국 경제 회복세 등은 아시아로의 자본 유입 매력을 높이는 요인들이라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이 지역으로의 자본 유입이 크게 늘 것으로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선방과 경제 회복력은 최근 원화 강세의 설득력을 높인다. 아울러 미국 대선을 전후로 진행된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는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A 외환 딜러는 "중국과 한국 등의 지표가 양호하다 보니 원화에 대한 시각이 쉽게 달라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시장 심리가 돌아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생산 및 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마찰적인 수급에 대한 경계감도 크다.

9월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은 약 850억달러 쌓여 있다. 8월말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에서는 30억달러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달러가 쟁여져 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코로나 19에 따른 시장을 경험하면서 달러 보유에 대한 유인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에 대한 매물 소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가파른 원화 강세, 심리 쏠림 때문?

최근 원화 절상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일방적인 원화 강세 기대 속에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 헤지 언와인딩과 일부 주식 관련 달러 매물에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심리가 쏠리면서 수급 쏠림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밤사이 역외 거래와는 달리 역내에서 환율이 일방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 외환 당국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마(MAR) 거래를 통해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거래 행태에 대해서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 수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 당국은?

최근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충분히 인지할 만큼의 대규모 매수 개입은 제한되고 있지만 당국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면서 실제 미세 조정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화의 가파른 절상 속도를 두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당국 스탠스를 감안하면 달러/원 1100 원대 하향 돌파를 환율 쏠림의 척도로 활용될 수도 있어 보인다.

C 은행 외환 딜러는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입 변수를 감안하면 거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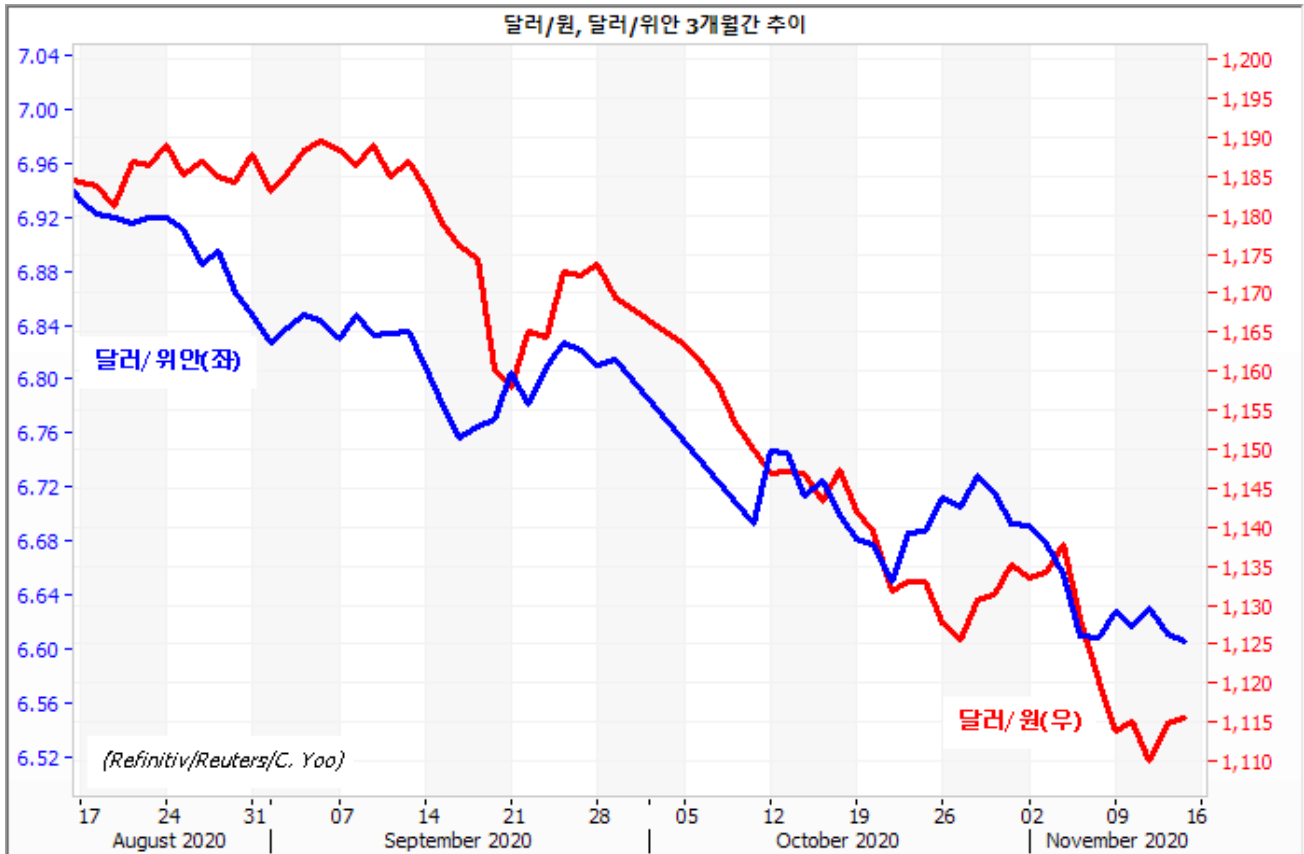
하지만 원화 강세 전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당국 변수가 오히려 환율 하락 변동성을 더욱 부추길 재료로 돌변할 수도 있다.

위의 딜러는 "당국 개입 변수를 의식한 포지션이 풀리면서 오히려 환율이 하락폭을 더욱 키우기도 한다"면서 "이렇다 보니 거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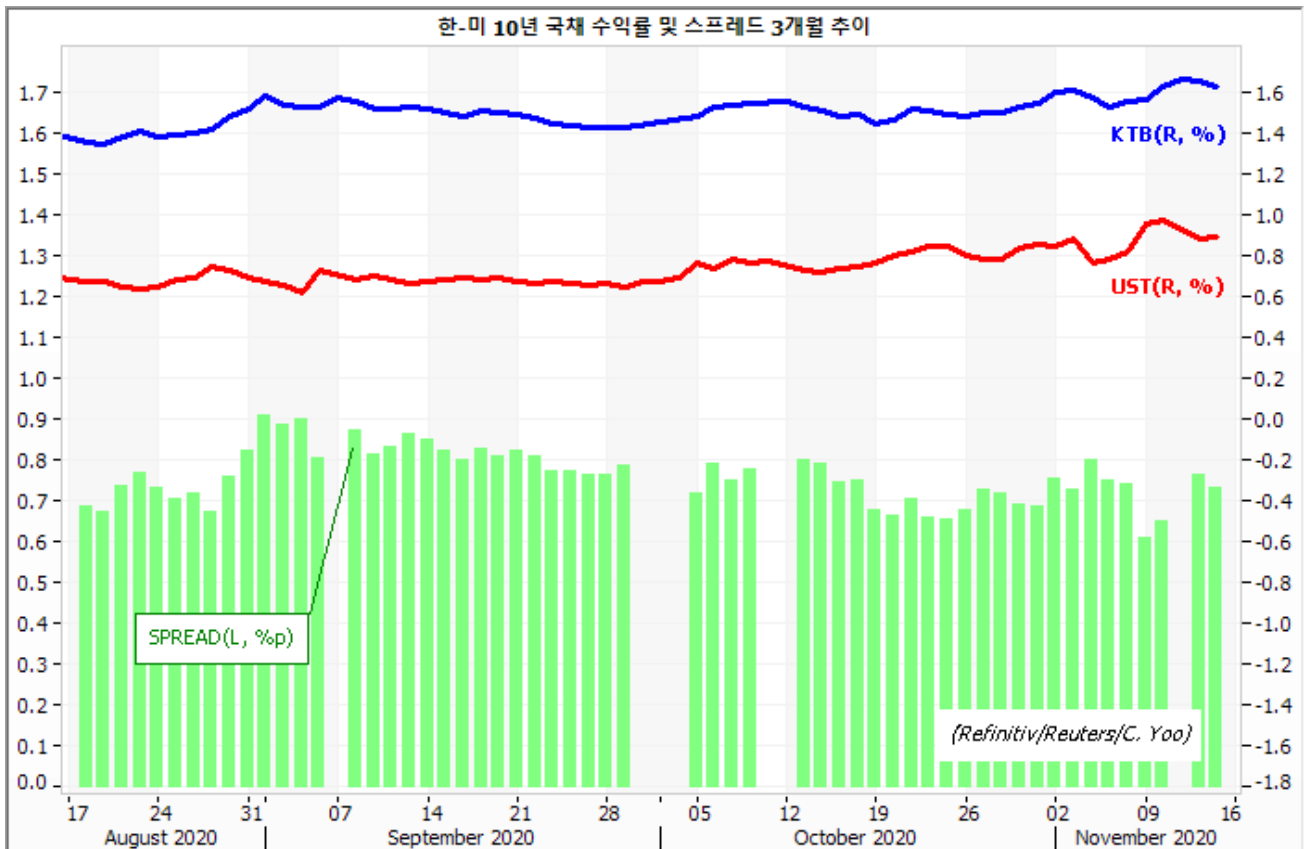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